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ME AND BANKSY

가제 : 나와 뱅크시

저자 : Tanya Lloyd Kyi

출판사: Puffin

발행일: 2020년 봄

분량 : -

장르 : YA 소설



**\* 사생활 침해가 가벼운 장난처럼 여겨지는 세대를 꼬집는 유쾌한 이야기 - 독특한 그림으로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짚은 아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잠깐 이에 낀 음식물을 빼내거나 머리를 만지고,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재빨리 바로잡기도 한다. 코 안쪽이 간질간질해서 잠깐 코를 후비고 음식을 혼자서 좀 흘리면서 먹거나 좀 민망한 부위를 손으로 뽐뽐 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딱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아니라, 보는 눈이 없을 때 편하게 하는 이런 개인적이고 내밀한 행동을 누군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얼마나 성뜩할까? 악의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심어놓고 지켜보는 것은 분명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감시 카메라가 그런 엉뚱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작가는 파격적인 작품 활동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의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의 이름을 제목에 내세운 신작에서 이처럼 다소 무거운 문제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맞선 당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생 도미니카가 학교 벽에 몰래 그리기 시작하고 급기야 학교 정책까지 바꿔 놓은 놀라운 결과를 얻어낸 엄청난 변화의 시작은 어느 바쁜 아침 교복 블라우스를 모르고 뒤집어 입은 채 등교한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미니카가 다니는 학교에는 재학생과 교사 모두가 편하게 글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단짝 친구 산비가 기겁하며 열어 보이는 바람에 처음 그 영상을 보게 된 도미니카는, 같은 학년 친구가 교내 카페에 혼자 앉아 있다가 코를 후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대체 누가 저걸 몰래 찍어서 업로드할 생각을 했을까? 정체 모를 영상은 계속 이어졌고, 마침 윤리 수업 시간에 개인 사생활 침해에 관한 리포트를 쓰느라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도미니카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과제를 쓰려고 했다. 도미니카가 선정한 세부 주제는 드론이었는데, 케이터링 사업을 운영하는 엄마만 생각해봐더라도 늘 일손이 달려 허우적

대는데 드론을 잘 활용하면 무거운 음식이나 자칫 잘못 배달했다가 망가지기 쉬운 음식을 얼마나 가볍하게 배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친구들이나 엄마는 그런 장점보다 엉뚱한 곳에 위험한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드론에 내포된 위험성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지만 도미니카의 생각은 달랐다. 엄마가 열여섯 살이 되기 전까지는 일체 금지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었다. 도미니카는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겁내고 거부해서는 기술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엄마도 설득하고, 이번 과제를 계기로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설득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번에 뒤집는 사태가 벌어진다.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계속 올라오던 몰래 카메라 같은 영상에 도미니카의 모습이 담긴 것이다.

누군가 걱정하고 편집까지 해서 올린 그 비디오에는 도미니카가 도서관의 구석진 곳에 들어가 교복 블라우스를 벗었다가 다시 입는 과정이 슬로우모션으로 요상한 음악까지 깔린 채로 담겨 있었다. 안에 입은 브래지어가 선명히 찍힌 그 장면은 도미니카가 오전 내내 옷을 뒤집어 입은 줄도 몰랐다가 점심 시간에 깨닫고 얼른 다시 입었던 날 찍힌 것으로, 같이 보던 산비가 외친 것처럼 ‘헐벗은’ 것도 아니고 ‘스트립쇼’를 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군가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다. 온 학교에 잠깐이지만 속옷 입은 모습이 다 공개됐다는 수치심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자 크게 분노한 도미니카는 진원지를 찾고 말리라 마음먹는다. 학교 측에서도 점점 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 영상의 촬영자를 찾기 시작하고, 교내 CCTV가 해킹 당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커뮤니티 사이트는 일시 폐쇄되고 끔찍했던 해프닝은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 같았지만 도미니카는 아니었다. 기술의 불가피한 ‘부작용’이라고 굳게 믿었던 만큼 그 심각성을 더 뼈저리게 느낀 도미니카는 학교 곳곳은 물론 가는 곳마다 내려다보는 감시 카메라가 무서워진다. 과연 이 많은 카메라가 정말 필요할까? 그 때 문득 또 다른 단짝인 훌든의 집에 놀러갔다가 훌든의 엄마에게서 처음 들은 ‘파놉티콘’이 도미니카의 머리를 스친다.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여겨지는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이 섬뜩한 원형 감옥이 수백 년이 지나 도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결국 실현됐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예술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말에 영감을 얻은 도미니카는 그림으로 그려 보기로 한다. 그런데 도미니카가 선택한 도화지가 학교 벽이었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다람쥐를 의인화하여 파놉티콘에 갇혀 감시당하는 모습을 묘사한 도미니카의 그림은 서서히 이목을 끌고, 사생활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발점이 된다. 처음에는 그림의 주인공이 도미니카인줄 몰랐던 친구들이 도움을 자처하면서 도미니카의 ‘프로젝트’는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중요한 사회 이슈를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재미 있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타냐 로이드 키(Tanya Lloyd Kyi)는 활자 조판, 그래픽 디자인과 사진 편집 분야에서 일하다 전업 작가가 되었다. 저서로는 미국 도서관협회 ‘아멜리아 블루머 프로젝트 리스트’에 포함된 『Shadow Warrior』, 몽테뉴 메달 수상작 『Why You Should Know』, YA 소설 『Anywhere but Here』, OLA 화이트파인 어워드(OLA White Pine Award) 결승에 오른 『The Prince of Pot』 등이 있다.

제목 : PERFECTLY PREVENTABLE DEATHS

가제 : 무조건 막을 수 있는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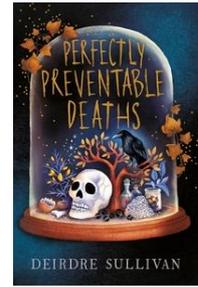
저자 : Deirdre Sullivans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9년 6월 1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시골 마을의 공포와 가족, 위험한 사건에 관한 아일랜드 고딕 스토리. 디어드리 설리반은 앤젤라 카터의 대를 잇는 작가다” - 『Spare And Found Parts』의 작가 새라 마리아 그리핀
- \* “위트와 연민의 감정으로 독자를 유혹한 후 스티븐 킹, 셸리 잭슨에 맞먹는 공포와 반전으로 뒤통수를 치는 소설. 디어드리 설리반처럼 십대나 마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가는 없다.” - 아일랜드 도서상 수상작 『Knights of the Borrowed Dark』의 작가 데이브 루덴

60년 전부터 십대 후반 소녀들이 하나 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뼈 몇 점만 발견되는 아일랜드의 외딴 마을, 볼리프랜에 쌍둥이 자매가 이사를 온다. 아빠, 엄마와 함께 살던 도시를 떠나는 이들의 이삿짐 중 절반은 식물이다. 매들린, 캐틀린 두 자매가 두 살 때 불길에 휩싸여 너무 일찍 떠나버린 아빠가 틈만 나면 정원에 나가 손보고 기르던 식물은 두 사람이 열다섯 살이 되도록 무성하게 잘 자랐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빠를 닮아 식물을 돌보던 매들린은 새로운 집 정원에 옮겨 심을 생각에 벌써부터 부풀어 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볼리프랜은 이사가 결정된 몇 달 전부터 생각할수록 무서운 곳으로만 여겨졌다.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여학생인 캐틀린이 도와주고 싶어 안달이 난 친구들을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한 결과, 그곳은 딱 매들린, 캐틀린 자매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들이 산 근처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된 섬뜩한 사건이 연이어 터진 마을이었다. 그럼에도 이사를 가기로 한 건, 몇 달 전부터 엄마가 데이트 하던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새 아빠가 되었고, 그의 고향이 볼리프랜이었기 때문이다.

대대로 집안이 그곳 토박이라는 브라이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을에서 가장 큰 성을 세웠으며 지금까지는 가족이 없어서 비워 두었지만 엄마와 두 자매를 데리고 그곳에 살고 싶다고 제안했다. 어딜 가나 공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캐틀린에게 매들린은 딱 어울리는 곳이라고 놀렸지만 캐틀린은 의문의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이름까지 줄줄 외며 브라이언이 말한 성을 ‘시체의 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어쨌든 엄마가 브라이언을 무척 사랑하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둘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했다. 매들린은 새로운 곳에 갈 때면 늘 그래왔듯 주머니에 말려 놓은 약초 몇 줌과 소금, 밀랍을 꼼꼼히 챙겼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매들린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볼리프랜에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고 매들린이 할 수 있는 건 귀신과 유령을 쫓는 그 재료들을 단단히 움켜쥐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살인이 벌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산이 가까워질수록 매들린의 눈 앞에 서늘한 소녀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 게걸스럽게 소녀들을 찢고 내려친 악마 같은 존재의 손에서 스러져간 소녀들이 풍선처럼 매들린의 눈 앞에 두동실 모습을 드러냈다.

음침하고 오싹한 소설로 여러 차례 상을 수상해온 작가는 주술과 마법이 가득한 판타지적 요소를 현대 YA 소설에 접목시켜 색다른 스릴러를 완성했다. 험한 들판과 곁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굴 주변에 시체들이 쌓인 아일랜드의 이상한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주인공 매들린은 새 아빠의 고향인 볼리프랜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쌍둥이 자매 캐틀린의 예감처럼 이곳에 생명을 노리는 무서운 약탈자가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매들린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술사가 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매들린은 새 아빠의 안내로 거대한 성에 첫 발을 들이고, 그곳에 숨어 살던 정체불명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특별한 능력은 다름아닌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마모’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어떻게 오래 전 죽은 매들린의 생부를 알고 있을까? 어떻게 첫눈에 매들린이 평범한 소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챘을까? 지금까지 매들린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주술 능력은 왜 볼리플랜에서 갑자기 발현되기 시작했을까? 매들린은 이 모든 의문의 답이 바로 캐틀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정확히는 캐틀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을 매들린이 가장 먼저 눈치챘고, 누구보다 아끼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숨어 있던 주술사로서의 능력이 깨어난 것이다.

워낙 작은 동네라 마을 사람들끼리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는 볼리플랜에서 두 자매의 새 아빠 브라이언은 일종의 ‘두뇌파’였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묘책을 떠올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이었다. 캐틀린이 이사 직후 론이라는 남자에게 푹 빠져 데이트를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늘 붙어 다니던 자매 사이가 조금 멀어졌을 때만 해도 매들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론 이야기만 하는 캐틀린에게 질렸을 뿐,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캐틀린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에게 빠져드는 것이 못내 불안하다 싶을 즈음, 매들린은 그와 데이트를 하고 온 캐틀린의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무엇보다 론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브라이언이 마을의 해결사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기에 매들린은 엄마보다 브라이언에게 가장 먼저 걱정을 털어놓는다. 그러나 엄마와 재혼한 후 처음으로 그와 단 둘이 오래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된 매들린은 브라이언과 그가 자신들을 데려온 그 거대한 성에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음을 직감한다. 주술사 마모가 성 지하에 몰래 살아야 했던 것도 그 비밀과 관련이 있었다. 음침한 마을에서 연이어 벌어진 살인 사건의 비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영혼의 거래와 희생에 관한 이야기가 흡입력 있게 펼쳐지는 개성 넘치는 스릴러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디어드리 설리반(Deirdre Sullivan)은 YA 소설로는 최초로 유럽 문학상 결승에 오른 『Primperfect』를 쓴 작가로 2016년에는 소설 『Needlework』로 CBI 소설상과 화이트 레이븐 상을, 2017년에는 『Tangleweed and Brine』으로 아일랜드 올해의 최우수 YA 소설 상을 받았다.